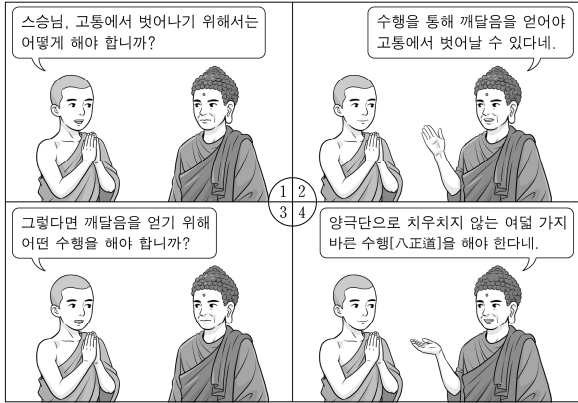
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성명  수험 번호

1.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  
[27.06.01]



- 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(兼愛)를 실천해야 한다.
- ② 자신의 지위와 명분에 알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[正名] 한다.
- ③ 윤회를 완전히 끊어 내려면 연기(緣起)의 법칙을 깨달아야 한다.
- ④ 검허와 부쟁(不爭)의 덕을 바탕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.
- ⑤ 사단(四端)을 확충하고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야[求放心] 한다.

2. 근대 서양 사상이자, 그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  
[27.06.02]

갑: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가지고 일해야 할 수단이며,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일은 그가 주목하는 목적이다. 어떤 쾌락과 고통의 가치는 강도, 지속성 등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 더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.  
을: 두 가지 쾌락 모두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중 하나가 양에 있어서 더 많은 불만족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선호한다면, 그 쾌락은 질적인 우월성을 지닌다.

- ① 갑: 인간의 모든 행위는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.
- ② 갑: 고통을 동반한 어떤 행위도 공리 증진을 위해 허용될 수 없다.
- ③ 을: 쾌락의 양을 늘리는 행위가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는 없다.
- ④ 을: 질이 낮은 쾌락을 바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.
- ⑤ 갑과 을: 공동체의 이익과 그 구성원 이익의 총합이 같을 수는 없다.

3.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27.06.10]

일반 의지만이 국가의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다. 개별 이익들의 대립이 사회의 설립을 필요하게 했다면,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별 이익들의 일치이다. 사회는 오직 공동 이익을 기준으로 통치되어야 한다.

- ① 일반 의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 이익 전체를 포괄한다.
- ② 주권이 대표 불가능한 이유와 양도 불가능한 이유는 다르다.
- ③ 사회 계약은 국가 안에서의 자유를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이다.
- ④ 주권은 양도될 수 없기에 주권자만이 법의 정당한 집행자이다.
- ⑤ 사회 계약으로 수립된 주권도 공동 이익의 침해를 의도할 수 있다.

4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  
[27.06.13]

희망 없는 깊은 슬픔과 불행이 어떤 사람의 생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앗아 갔음에도, 이 사람이 죽음을 원하면서도 영혼의 힘이 강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자. 이때 그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해서 또는 경향성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그러하다면, 그의 준칙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.

- ①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존재에게만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.
- ② 의욕의 주관적 원리 가운데 어떤 것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.
- ③ 정언 명령만이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의 실천을 명령할 수 있다.
- ④ 의욕과 도덕 법칙이 항상 일치하는 존재만이 자율적일 수 있다.
- ⑤ 의무로부터의 행위가 가진 도덕적 가치는 행위 대상의 선함에 있다.

5.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  
[27.06.16]

품성적 덕은 단순히 올바른 이성을 따르는 품성 상태일 뿐만 아니라, 올바른 이성을 동반한 품성 상태이다. 이 올바른 이성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. 따라서 실천적 지혜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, 품성적 덕 없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진다.

- ① 품성적 덕은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을 잘 판별하는 탁월함이다.
- ② 육체적 즐거움을 느낀다면 절제의 덕을 가진 사람일 수는 없다.
- ③ 부정의한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뿐이다.
- ④ 용기의 덕은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하는 품성적 덕이다.
- 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좋은 습관을 형성한 사람이기도 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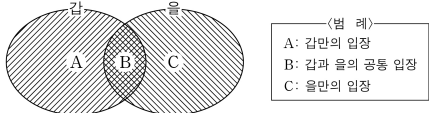
6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  
[27.06.18]

갑: 성인(聖人)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사람들의 이로움이 백배가 된다. 인(仁)을 끊고 의(義)를 버리면 사람들이 효도와 자애를 되찾게 된다. 기교를 끊고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없어진다.

을: 진인(眞人)은 적은 일에도 거스르지 않고, 성공을 뿔내지 않으며 세속적인 일을 미리 피하지 않는다. 이러한 사람은 일이 잘못되어도 후회하지 않으며, 잘되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.

- ① 갑: 인위적인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도와 덕이 생겨난다.
- ② 갑: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일 때 진정한 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.
- ③ 을: 개별 사물은 고유한 본성을 지니지 않기에 모두가 평등하다.
- ④ 을: 만물은 상대적 가치를 지니지만 그 안에 절대적 근원이 있다.
- ⑤ 갑과 을: 무욕에서 벗어나 무위를 실천해야 자연과 하나가 된다.

7. (가)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27.06.19]

(가)	<p>갑: 굵은 나무는 반드시 뜨거운 물에 찌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곧아진다. 무딘 쇠붙이는 솥돌에 갈고 닦은 연후라야 날카로워진다. 이처럼 사람의 본성[性]이 선해지는 것은 작위[偽] 때문이 아니겠는가?</p> <p>을: 우산(牛山)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, 날마다 나무를 베어 가 민둥산이 되었다.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무가 없었다고 하는데, 이것이 산의 본성이겠는가? 이처럼 어찌 사람의 본성에도 인의(仁義)의 마음이 없겠는가?</p>
(나)	

—<보 기>—

ㄱ. A: 도덕의 근거를 하늘[天]로부터 도출해서는 안 된다.  
 ㄴ. B: 이기적인 욕망의 극복을 위해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.  
 ㄷ. B: 군주는 백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.  
 ㄹ. C: 이상적 정치는 어진 마음이 아니라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ㄹ
-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ㄷ
- ⑤ ㄱ, ㄷ, ㄹ